



즉시 배포용: 2018년 10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랍비 **ANGELA BUCHDAHL**을 비롯한 뉴욕주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범종교 기도회에 참석하여 평화와 시민 의식 촉구

*유대교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미 역사상 가장 심각한 폭력 사태 이후, 유대교 중앙 회당은 주지사와 **Dolan** 추기경, **Amy Butler** 목사, **Amandus Derr** 목사, 랍비 **Chaim Steinmetz**를 비롯한 뉴욕주의 범종교 지도자들을 초청*

유대교 중앙 회당 성직자들은 **Dolan** 추기경 및 뉴욕주의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 **Andrew Cuomo** 주지사와 함께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8시 15분 범종교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유대교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폭력 사태를 비롯하여, 폭력적인 증오 범죄가 일어난 지 1주일 후 우리는 함께 연대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폭력 사태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뉴욕주 전역에서 범종교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Cuomo** 주지사도 참석하여 평화와 시민 의식을 촉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기저에 두려움과 끔찍함을 안겨 주었지만, 뉴욕 주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우리는 다양성이 뉴욕주의 가장 큰 강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들끓는 증오와 분노, 분열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렇듯 힘든 시간에,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께 여러분의 종교, 인종이나 신조가 무엇이든 뉴욕은 하나이고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종교 시설이 폭력과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랍비 **Angela Buchdah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와 반유대주의적 폭력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종교인이나 미국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기에 종교의 경계를 넘어 함께 모여 국가 분열과 편파성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지사님께서 통합을 촉구하며 저희와 연대해 주셔서 무척 영광입니다.”

오후 7시 45분부터 개방되며, 기도회는 오후 8시 15분 **Lexington Avenue 652** 유대교 중앙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일요일, Cuomo 주지사는 10월 29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일요일 일몰까지 피츠버그의 생명의 나무 유대교 회당(Tree of Life Synagogue)과 켄터키 주 제퍼슨타운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든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끔찍한 총격 사건과 폭탄 테러 시도 후 평화와 시민 의식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